

繕物을 보내기로

十七日 오후二時부터 은좌 사정
목크리스찬센터에서 열었다。

일본기독교협회의회 (日本基督教
協議會) 총간사 「에비자와」 씨를
비롯하여 각위원이 모여서 협
의한바 한국의 고아원, 양로원

있는것같은 印象을 줄려고
진努力을 다하고있다.
조런은 또한 獨逸國民과
共人民間の 友好的關係를 맺는
것을 希望하며 또한 鐵의 强幕
뒤에있는 人民들이 自力經濟로
能히 하나갈수있으며 따라서
自由民主陣營의 援助가 必要치
않는것같이 보이기爲하여 努力
하고있다.

北韓人民들은 王汗 亞細亞의
食糧이 歐羅巴人을 早양하도록
供給한다는 報道를 非難하고있
는지도 모른다. 歸還捕虜들로
부터 今집한 報告에 依하면
北韓에는 지금 食糧難에 當面
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北韓
은 亞細亞에 있으며 따라서
中共의 食糧을 北韓人民들에게
供給한다는것은 共產主義宣傳價
值가 적어질것이다. 王汗

병원을 위하여 산양 돼지와 소와 닭을 보내기로 계획하였는데 「염소하라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 니콜슨 선교사가 교파서에 「한마리 산양」이란 글을 읽는 전국 소학 교에 을 파집 없이 보냈는데 이 계획에는 정치적 의의가 있기는 것을 극력으로 피하고 있다고 한다.

在日大韓民國 民團中央總本部

十月二十二日과二十五 日에 繼
續하여 開催하고 役員을 改選
한 結果 新任役員은 다음과

東獨은 歐羅巴에 있으며 全歐羅巴諸國과 나아가서는 全世界에 이르기까지 共產主義의 宣傳이 될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北韓人들이 北韓에 侵入한 中共軍에게 食糧을 供給하도록 強制할 當하여 온것은 너무나 잘 알고있는 事實이다. 萬一 中共이 食糧이 充分하다면 無理由로 北韓에 있는 自己軍隊

를 부양할 食糧을 供給하지 않는가?

이와같은 모든點에 立脚하여 생각해보면 中共이 東獨人에게 食糧을 供給하리라는 聲明은 事實根據없는 一種의 宣傳에 지나지않으며 數百萬의 人間의 福利와 人間의 價値 生命까지도 無視하는 共產主義의 政治的 策策에 지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監 察 局 長	副 長	團 長	營 長
梁 樹 斗	金 錫 在	張 總 明	金 啟 華
裝 東 湖	金 尚 旭		
丁 實 鎮			

日本有力ハ牧師ヲ派遣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團)에서는 일본의 기독교와 미국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을뿐 아니라 최근에 일본국민 가운데 반미사상(反美思想)이 상당히 있으므로 일미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번에 열리는

전국 상의위원회에서 일미친선
국민외교의 목적으로 유력한
목사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고 한다.

救世軍黃鐘律正領

停年으로隱退

正領

停年으로 隱退



한국 구세교 병영 서기장관
(韓國救世軍 本營書記長官) 황
종률(黃鍾律) 정령은 지난 十
月二十九日로 구세교 북부 구
정에 의하여 六十五세의 만기
로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황정령은 한국구세교 당초부터

議長	金元男
副議長	金龜澤
國會議員	洪賢基
金龜華	金元男
鄭哲	金善斗
裴東淵	金英俊
(候補) 金在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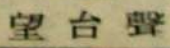
우리 조국과, 한도였다고 따라서

동교단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유학생으로 청년남녀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의 도미시찰단은 연령으로나 경험으로나 일본기독교계의 지도적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매년 몇명씩 보내서 약 반년간 미국각지를 시찰하

이기로 되었다고 한다.

구세군에 입신하여 구세군사관학교를 일회로 졸업하고 계속하여 四十三년동안 구세군에 헌신한 원로로 한국 구세군의 육성과 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운 분이다.

후에 구세군 재건에 많은 노
력을 한결과 어느정도의 정돈
과 회복을 보게 된 금일에
은회하게된것은 구세군을 위하
여 매우 아까운 일이라고 애
석히 여기는 바이며 황정령은
이제 은퇴하기전에 전국에 있
는 각구세군 영문을 한번 순
회한뒤에 十月二十九일 밤에는
서울 새문안 예배당에서 은퇴
기념예배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人事

이기 시작한 일은 근래의 처
음되는 꽤한 소식이다.
○역사 이래로 난국에 처해있는
우리 조국과, 한도했다고 따라서
서물로 올라갔다 도루 내려왔
다 하면서 때에서 갈팡질팡하
는 우리 민족의 정형을 한주이
에 한번식 단 한시간이라도
생각만이라도 한다는것은 고만
고 귀한 일이다.
○우리 조국 내통도를 누가 생
각하랴. 그런데 외국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원조물자를 가
급 보내는데 우리는 너머 무
심하지않은가 요세 신문지상에
문제됨(이름)이란 통포도 그
많은 돈을 통포나 조국을 위
위해서는 쓰일이 없다고하고
또 누구는 일본사람 장하기관
에는 돈을 내도 우리학생은
몰지않는다니 인정간에 그럴수
가 있는가 우리는 그 심리를
알수없다.
○우리민족이 개인으로 재주도
있고 역량이 꽤 있으나 단결
하는 힘이없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것이 말이
다. 저 혼자만 일등호텔에서
자고 한때에 몇만원씩 요리먹
고 잠간 나가도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의 심정은
아무리 해도 알수있다 굳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음이 편할
까.

世界長老教會東部大會參席한

總會長 明信弘牧師談

지난八月중순에 당지를 거쳐서 화란 방우소에서 열리는 세계장로교회 동부대회에 참석하려고 떠나 있던 장로교 총회장 명신홍목사는 그 사명을 다하고 화란 수도「헤그」와 그밖에 각지에서 교회사정을 시찰하고 각대학도 방문한후에 팔리스틴으로 가서 성지를 찾아보고 약 이개월만에 귀국하는 길에 지난二十四日(토요일)에 당지에 들렀는데 씨는 다음날인二十五日주일 오전에 우리 동경교회에 예배에 참여하여 그동안 다녀온 경과와 소감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내 여행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떠난 길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특히 성지여행을 하고 오노라고 그럴게 오래되었다.

제일 감사한것은 이번 내가 참석한 세계장로교회 동부대회는 주로 신학문제와 교회의 처리와 선교사업에 대한 토의가 그 중요한 의제였고 각국의 교세나 교회사정을 보고할것은 명년 세계대회에서나 하게되었고 이번에는 순서에도 없는것을 특별히 학국교회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지고 三十分 동안 시간을 주어서 우리 사정을 충분히 말하게 되었고 또 질문들이 있어서 十五분정도 질문에 대답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활발한 사정을 듣고 감이 깊어져 할수있는대로 물자와 돈으로 원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화란이나 그밖에 서구라파 여러나라에서 전에는 그렇지 못한 모양인데 요새는 한 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서 웬만한 적은 사건도 신문일면에 자주 기재되는데 우리 이 대통령에 대하여는 자기 정권을 잡기에만 급급한 사람이라 그 오행가 많은것을 내가 그 령지 않다고 잘 설명하였더니 비로소 알아듣고 그가 공산주의와 강하게 싸우는것도 이해하며 전민중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을 비로소 이해하였다 나는 이런것을 기회있는대로 외국에 사람을 보내서 선

전을 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란의 교회관계의 유수한 대학을 방문하였는데 학국에서유 학생을 보내면받겠다는 허락을 받았고 성지에가서는 예루살렘과 요르단 예수자라신 나사렛과 전도역사를하신 갈릴리 해변의 여러곳을났듯이 다니며 보았는데 각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열락부 짝이요 모두

많은 감화를 받고 돌아가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로 말할수없다 다만 여기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갈바리산 위에서 못박힌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세계평화는 오리라고는것을 믿이 깨달았다.

끝으로 명목사는 二十六日 CATM으로 곧 귀국하였다.

關西地方勉青連合會

創立總會開催

지난 十月十八日 午後二時 반에 관서지방교회 면청회장회의를 열었는데 관서지방면청연합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오는 十一月二十三日오전十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회에 접하여 특별강연회를 하기로 되어 강사로는 새로 본국서 부임한 재일 Y.M.O.A 총무 김우현목사에게 교섭중이라고 한다.

日까지 三일간 주기도전도회를 열었는데 매일 저녁 七시부터 시작하여 전도강연이 있은후에 영화도 있고 청년들은 로망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강중을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부인들은 집집이 동포의 가정을 방문하며 비라를 전하여 날마다 예배당에 가득가득 하도록 모여서 많은 감격을 받고 새로 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수십여명이 되었다.

大阪西成教會秋期大傳道會

대판 서성교회에서는「나그야 교회」김영복목사를 강사로 청하여 지난 二十三日로 二十五

總會公告

一九五三年十月廿日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同 憲法改正委員會

憲法改正及追加箇條

第七回定期總會時治理局決定
○「傳道人」에關한件
○「傳道人」에關한件
○「傳道人」에關한件

一、傳道師에關한件

傳道師에關한 憲法規定은 第七回定期總會時에 通過된 改正案第五章第四節의 規定을 再確認함.

改正案第五章第四節이란 「男女傳道師는 堂會의(堂會 없는곳에는 地方牧師)推薦으로 地方會가 任命하여 有給傳道師로 堂會나 牧師의 管

一、傳道師에關한件

傳道師에關한 高等聖經學校 卒業者 또는 同等以上の 學力이 有한者로 地方會試取에 合格한者라야 되나니라.

(以下略함)

一、長老牧師에關한件

憲法第五四條中「한教會에서 執事職을 無缺이 繼續三年視 務한者」로 修正함.

休職中에이든長老의復職에關한件 長老의手續 領한者가 오면 同안 쉬었다가 다시 復職코자할時는 第四三八條를 適用할지나 但한教會에서 三年以上 禮拜에 參席한者라야 할지

一、長老牧師에關한件

師試取에 合格한後 本總會의 指導下에서 三年以上視務한者라야 牧師試取을 資格이 有하며 第一九條第一號但條를 適用하나니라.

(二) 第一九條第一號中「神學을 卒業한者가 講道師試取에 合格한後 本總會의 指導下에서 一年以上視務한者로 牧師試取을 資格으로 준다는 그 「一年以上」을「二年以上」으로 修正함.

一、長老牧師에關한件

憲法第五四條中「한教會에서 執事職을 無缺이 繼續三年視 務한者」로 修正함.

在日韓國 Y M C A 의

와이즈 맨스 클럽發足

김우현(金禹鉉) 목사가 재일 十月二十三日(금요일) 오후六시 한국 Y M C A 총무로 부임한것은 이이 보도한바와같이 이씨는 조국의 사정이 절박한 오늘날에 일본에 지도적 임장에있는 우리한국 여러인사들과 뜻있는 친구들이 우선 자주 한자리에 모이고 만일 기회를 지을 필 요가 있다고하여 그의 첫사업으로 Y M C A를 중심으로 "와이즈 맨스 클럽"을 모이기로 제 안한바 이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얻은 결과 제일로 지난 바라고 한다.

希望에서 움직이는祖國의 모습

基督公報總務局長 金澤根氏談



사진은 김형근 씨

동업 기독교보사 총무국장 김형근씨는 기독교 언론계와 문화운동에 대한 시찰을 겸한 여행길에 나서고 있다.

以上

總會臨時規例

(憲法條文에는記入치않음)

一、總會組織에關한件
當分間、本總會組織은 視務 教師一人에 對象視務長老倍數 地方會에서 選出한 總代理로 組織하나니라 但、敎役者로써 視務長老일시는 前段에 拘束치않고 總代가 될 수 있나니라.

總會總代理에關한件

一、總會長老로 復職許諾을 받은者나 敎師안手證書 받은者에게 當年總會即席에서 總代理를 부여치못할지나 憲法에 依하여 地方會에서 選出한者가 翌年度總會에 總代가 될

다음과같은 本國사정의 變遷이 있었다.

저는 이 땅에 처음 왔으나 本國에 宗敎한 여러 聖典을 그중에도 聖典장 司書사남과 그리고 本國서부터 宗敎한 모시든 本國신문사 宗敎한 本國 Y M C A에 새로오신 김우현목사님 두분을 만나게 하니 그날 그들을 만나지 않고 聖典을 모시고 지내는데는 眞正한 것이 있을나니라.

本國사정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신문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本國서 온갖 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라니 생각나는대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장로한분과 목사 한분이 들어갔다는것이 아마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는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전에도 기독교인이 정부에 들어간 일이 많이 있지마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농민과 관계가 깊은 농림부에 양성봉창로가 장관이 되었고 배민수목사가 금융총연합회장 이 되신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지금 모두 믿을수가 없는 형편에 특별히 농민과 관계가 많은 자리에라도 양성적인 사람을 택해서 맡겨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두분을 택하여 등용하신것이라는데 앞으로 차차 우리 기독교측에서 정부와 민중의 신임을 받게 된다면 우리민족을 위하여는 매우 복된 일이니만큼 두분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다음에 지금 정치회담의 에 비하면으로 모이는 政團정 회당은 처음에는 의제문제(議題問題)로 즉 공산측에서 중립국 참가를 제를 토의하는 문제로 충돌이 되었으나 제가 떠나 음의 뉴스로는 공산측의 양쪽으로 회담이 추진된다고 하며 명히 삼할까지 정치회담이 불여하 면 우리측으로 복진통일을 단행하는 우리대통령의 성명에 일반 민중들도 호응하여 기은 찬 회담의 성향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외국사람들도 우리에게 복진통일의 실효가 있다는것은 어느정도 인정하지않은 요새는 일선에 나서는 국군이 후방에 와서 특별하게 훈련하고있는 용감스러운 모습을 친히 보고 일한 국민은 더욱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週間時報

十月二十一日

○ 朝鮮公使館長官은 二十日記者會見席上에서 "美英佛三國外相은 美英佛三 四巨頭會談을 열기전에 亞細亞外相會談하라한다는데 意見의一致를 보았다"고 聲明.

十月二十二日
○ 韓日會談決裂原因을 韓國側이 予定의 行動이라고 日本政府外務省 當日發表.

十月二十四日
○ 日本政府外務省은 韓國에 日本代表部設置를 正式通告.

十月二十六日
○ 韓國政治會議予備會議에 聯席의 代表 아시 四氏는 二十四日 서울에 到着 "予備會議에서는 政治會議의 時日 場所 以外는 討論하지않는 다"는 國聯의 決定을 거듭 聲明.

○ 予備會議은 約十日間予定、必要지 않는 討論는 繼續적이라고 言及.

十月二十八日
○ 美陸軍總參謀長 韓訪問二日間滞在

在日學生代表會議國聯中央委員會參加

재일유학생 二十명이 國聯에 代表로 參加하여 二十日 서울에 도착하였는데 日聯은 전세호(錢世鎬)를 代表로 參加한 남자대학생들로 지난 二十日 부터 三日 동안 일리는 전 국하도국중앙위원회(全國學徒韓國中央委員會)에 재일한국학생들대표로 참가하였다.

關東地方會文化部長催

한글講習會開催

일본에 재류하는 일반인사와 학생들이 한글에 대한 인식과 소양이 부족한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또 지도자들부터 먼저 한글을 배워야 하겠다는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關東지방회 문화부에서는 오는 十月五日로부터 三日까지 八日 동안 한글강습회를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데 매일六시부터 한시반동안 공부하기로하고 강사로 는 한글에 연구가 깊고 일본 에있는 말지않은 한글학자들의 한사람인 장호(張曉) 선생을 청하기로하고 겸하여 본사주필 전영택목사의 우리 어문(語文)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사람 찾는 광고

성명 王仁寺
고향 慶南東萊장정
年令 六十
이분의 주소를 아시는이는 本社로 或 左記로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찾는사람
미국 하이와이
김인구씨부인
왕가호
Mr. In Koo Kim
1544 Wilder Ave.
Honolulu Oahu T.H.

한 국 요 리 법

나라를 따라 그 나라의 특별한 요리법이 있으니만큼 우리나라요리도 예로부터 여러가지로 발달됨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해외에 계신 가정부인을 위하여 우리나라요리법 가운데 요긴한것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요리법은 우리나라요리선생으로 유명한 방신영선생의 저술에서 뽑은것입니다 (편집인)

천 골 만 드 는 법 우 육 전 골

재 료 (오인분)

등심	반근	계란	세개
간장	네큰사시	옥초	세개
파	여섯뿌리	표고	다섯조각
마늘	세쪽	석이	두조각

1. 고기를 가늘게 채쳐서 갖은 약념을 해서 쪄여놓고,
2. 파 마늘을 채쳐서 넣고,
3. 옥초 (등근양파) 을 채쳐서 넣고,
4. 표고 석이를 잘 씻어서 (석이 씻는법을 참고할것) 채쳐 넣고,
5. 냄비에 고기를 펴놓고 옥초와 파인 채친것과 표고와 석이를 섞 맞추어 넣고,
6. 물에 간장을 알맞게 타서 붓고 화구에 놓아 끓여서 고기가 익거든 계란을 조심해 깨트려 넣고 덮개를 덮어서 잠깐 두었다가 계란이 반숙되거든 상에 놓는다.

두 부 전 골

재 료 (칠인분)

두부	한모	표고	여섯조각
우육	반근	석이	네조각
간장	네큰사시	느타리	네조각
파	두뿌리	계란	두개
호추가루	조금	미나리	썰어서반보시기
깨소금	한큰사시	숙주	대쳐서반보시기
녹말	두큰사시	죽순	작은것한개
기름	두차사시	당근	작은것한개

1. 고기는 반을 채썰어서 갖은 약념을 해서 쪄여놓고,
2. 절반은 곱게 이겨서 갖은 약념을 해서 쪄고
3. 두부는 곱게 모양으로 약간 큰듯하게 썰어 가지고 이겨서 약념에 놓은 고기를 두부 하 면에다가 얹히게 붙이고 두부 한조각을 얹 붙여 가지고 (고기를 사이에 두고 두부 조각

7. 숙주는 표리를 따고 잘 씻어서 곱는 물에 넣어서 잠깐 데쳐놓고,
8. 죽순은 가늘게 채쳐서 넣고,
9. 당근도 가늘게 채쳐서 곱는 물에 데쳐놓고,
10. 계란한개는 알계 부쳐서 곱파죽처럼 썰어놓고,
11. 이제는 양전한 전골 냄비에 담을것이니 먼저 쪄여놓은 채친 고기를 펴놓고,
12. 깨소금을 세스럼게 한겨 펴놓고 다시 고기를 한겨놓고,
13. 이번에는 두부부친것을 한겨놓고 또 여러 약념들을 한겨놓고,
14. 이렇게 해서 다 담은 후에 권위에는 파인 채친것과 계란채를 뿌리고 싹고추를 약간 뿌리고,
15. 냄비에 자란자란하게 물을 부울것인데 먼저 간장을 타서 국물의 간을 맞추어 붓고 화구에 놓아 끓여서 상에 놓는다.

(4) 닭 전 골

재 료 (오인분)

영계	한마리	계란	한개
우육	작은것한개	표고	네조각
간장	세큰사시	석이	네조각
파	여섯뿌리	호추가루	조금
마늘	두쪽	깨소금	한큰사시
생강	조금	기름	조금

1. 어린닭을 잡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잘 잡는법을 참고할것) 살만 알계 자면서 채를 채서 간장에 갖은 약념을 다 해서 넣고 (파 마늘 생강을 다 곱게 이겨서 넣을것).
2. 표고 석이 느타리들을 잘 씻어서 곱파죽처럼 썰어서 달에 넣어 섞어놓고,
3. 여기에 물을 자질자질하게 붓고 양화 (등근한 불) 에 죽 무르도록 끓여가지고 간을 잘 맞추어 넣고,
4. 우육을 곱파죽 처럼 썰어서 전골 냄비에 담은 후에 달기도 우육에 넣고 국물을 맞추어 붓고,
5. 옥초 (등근양파) 와 파알을 채쳐서 모양있게 넣고 싹고추 조금만 위에 뿌려서 꼭 끓여가지고,
6. 계란을 깨트려 끓여서 전골 위에 고루 붓고 덮개를 덮어서 잠깐 뜸 들여서 상에놓는다.

感謝節의精神

감사절은 교회에서 일년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뜻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정신에서 출발하는것이요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을 부흥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절의 의미가 깊어지고 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인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따라서 힘써 바치는 일이 생기는것이다. 은혜를 깨달아서 바치는 정신

과 실지로 바치는 일이 있을 때 또한 신앙생활에 필요한것으로 교회에서는 이 일을 장려하는것이요. 구약에도 감사절을 지키는 법이 있지만 근대에 와서 교회에서 감사절을 「주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한 유래는 미국의 건국조상이 처음 신대륙에 가서 추수절을 지킨데서부터 시작된다.

영국 메리엄 웹스터의 신앙의 압박을 받은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을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한 무리는 유명한 청교도 (清教徒) (Puritans) 이었다. 「메리 블라워」라는 배를 타고

고 험한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생소하고 쓸쓸할뿐 아니라 본토인인 홍인종과 그밖에 무서운 짐승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우지를 개척하기에 전심하고 그들 다 죽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개척을 하며 농사를 지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되어 추수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스러운 나머지 그 추수한 것을 온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다만 감사의 예배만 드린것이 아니라 모든 불자과 정성을 바쳐서 온전 하에 배당을 지어놓고 감사절을 지켰었다. 물론 그들은 개척과 농사에 바쳐서 자기네 살집을 지을 여가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그냥 통나무로 대강 세운 움집에서 그대로 겨울을 날 지엄정 하 나님의 성전을 온전 하에 지어놓고 감사절을 지킨 것이요 여기에 감사절의 정신이 있는것이다.

구약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오후에 왕페로 성전을 지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집에만 있기에 골골하였기 때문에 예언자 학개는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것이 가하나...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못하여

香氣 約束을 지킨愛國者

옛날에 로마와 지중해(地中海) 건너있는 갈라고 나라와 여러해 동안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 갈라고는 매우 피폐하여서 전쟁을 더 계속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갈라고에서는 로마에 사신(使臣)을 보내서 화친(和親)을 청하기로 하였다. 이때 로마의 장군 「레글리」가 포로(捕虜)로 잡혀서 여러해 옥에 가쳐 있었는데 갈라고에서 사신을 보낼적에 장

군을 데리고가기로 하되 만일 자기나라에 가서 잘 표현해서 화친을 시키면 놓아주기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로 돌아와서 가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레글리 장군은 갈라고 사신을 파로서 오랜만에 고국 강산을 보게 되었다. 로마의 원로원(元老院) 대표들은 갈라고 사신과 레글리 장군을 만나러 항구로 나왔다. 이때 장군은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물론 그 사랑하는 처자를 만



약의 복용법 내복약 쓰는법

병원에 당기는것이 구할아지든지 약먹는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병은 벌써 대소름지 않는다 그러나 약을 먹는 이상은 지시된 사용법에 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효과를 적게하고 있으며 혹은 효과를 전혀 얻고 있는가의 물종의 하나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게다. 약은 의사가 말하는것처럼(혹은 효능서(効能書)만큼) 효과 없다고 하는분은 실상 약의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설명하는것처럼 약의 사용법을 지시하는 것은 각각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의 사용법인 식전 식후, 시간복용등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식전—약이 전부 급속히 위장으로부터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기대할때 혹은 다음 식사를 위하여 식욕을 왕성하게 할 경우등에 「식전」이라고 지시될때가 많다.

예를 들면 흡몬제, 비타민제 등은 될수있는데로 빨리 그리고 완전히 흡수됨을 원하는것이며 또 어느 약국에서나 얻을어주는 「염산리모나이드」와 같은 식욕증진제(食慾増進劑)는 거이 대부분 「식전」이라고 지시되어있다.

식후—이것은 해열제와같이 위장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

므로 맞붙여 놓을것)

- 이것을 밀가루나 혹은 녹말을 물이고 계란을 풀어 씨워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전유어 지지듯이 양편을 지저놓고,
- 표고 석이 느타리 등은 잘씻어서 골짜기처럼 썰어서 기름에 살짝 볶아놓고(석이 씻는법을 참고할것)
- 미나리는 잘 다듬어 씻어서 닦은 길리로 썰어서 살짝 데쳐놓고,

는 경우라든가 혹은 소화제등이며 식후에 소화제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리고 식후라는 경우에는 보통 식후 30분정도를 지시하고 있는것이다.

시간—이라는것은 「식전」과 마찬가지로 흡수를 효과적으로 할 경우라든가 다른 약을 병용하기위하여 시간을 중복하지 않기위한 경우, 또는 위(胃)속에있는 산분이(酸分)이 많아질 시간에 그 산분을 중화시킬 목적등 경우에 「시간」이라고 지시된다.

복용(頓服)—이것은 한꺼번에 그 목적을 이르고 싶은 경우뿐이므로 연속적으로 복용할때보담 약의 양이 많고 좋

루도 진통제, 수면제같은것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종류의 약은 그 지시된 용량(用量)을 정확히 지키는것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이외에 예를 들면 위약으로 식후 한시간 혹은 세시간 하로 大히 복용등의 약이 있으나 이것도 위산(胃酸)의 분비(分泌)와 시간을 고려한것이므로 이 지시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을 먹을 의의(意義)가 없어진다.

이상의 복용법은 옛날부터의 국히 상식적인 복용법이지만 최근의 신약에는 절대적이라고 하여도 좋을만큼 명확한 이유로부터 그 용법이 특히 엄격이 지켜져야 할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사용법—화학요법제(化學療法)인 흡화민제, 혹은 항생물질제(抗生物質製)의 페니실린, 오프로마이신등은 반드시 세시간만큼이라든가 여섯시간 건너서라고 지시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있을것이다.

이와같은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이유는 혈중유효농도(血中有効濃度)의 보전(保全)이라고 하도 체내에 일정시간은 그 약도 일정한 농도(濃度)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시간 혹은 여섯시간 건너서 약의 보답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조속한 치료효과를 내기위하여 이 지시는 될수있는 정확히 지켜야 한다.

라는데 것이 하나 남나라의 법칙이다 예수께서 「한사람이 심으고 다른 사람이 경운다하는 말이 옳다」 하신 말씀은 이것을 가르친것이다(요한복음 35-36)

우리는 반드시 수고한 보수를 내가 받아야만 감사할것이 아니라 누가 받든지 감사할것이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물질을 복을 받아야만 감사할것 아니라 심령적 은혜도 감사할것이다 또 내가 받거나 못 받거나 누가 받든지 감사할것이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 당장 한낱가운데 있어서 감사할것이 없는것 같애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혜로 살아가는것을 권이같이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나 감사하여야 될것이다.



동년들어 기쁨으로 추주하는 우리농부

日本の逆轉的思想

主筆

우리가 보기에는 日本은 表
面으로는 民主主義國家라고
部 青年사이에는 平和를 사랑
하고 民主主義精神으로 살아가
려는 氣運이 있는것같으나 一
般大衆은 아직 옛날의 封建主
義와 帝國主義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分明하고 一部 指導者間
에도 過去の 過誤와 失敗를
깨닫지 못하고 逆轉的思想을 가
지고 民衆을 그르치려는 자가
가끔 있는것은 隣國人인 우리
로서도 可歎할 일이다.

이런에 衆議院議長 堤氏が
宗教問題로 보아서 憲法改正이
當然하다는 發言으로 關係者의
莫大한 衝動을 준 事件이 있
는데 그 問題가 된것은 上記
堤氏가 伊勢神宮 年祭에 参列
한뒤에 (지난十二日付) 神社新報
에發表한談話인데 그 가운데
「伊勢神宮이 國民의 奉贊으로
되었다는것은 眞實로 고맙고
기쁜 일이고 伊勢神宮은 日本
國家의 神宮이다」 이런點으로
보아 憲法改正도 考慮하여야
할것이다.」 한 말이있다고 한
다.

이것은 비록 個人的 意見을
말한 私的談話라 할지라도 「伊

성인이 있을수 없다 當時 敎團
의 代表人物인 高山滿氏等이
政府의 勅탁으로 韓國에 와서
「神社는 宗教가 아니오 國家儀
式인故로 參拜하는것이 可하니
基督教人도 같이 參拜하여 國
家總動員勸告에 協力하라」고 권
한 일을 記憶하면 이제 그들
도 부끄럼을 禁지못할것이다.
지금 韓日會談이 決裂되고
兩國間의 感情이 惡化되는것도
그 같은 原因을 살펴보면 아
직 日本사람이 옛날의 優越感
을 버리 못하는것이요 아직도
옛날의 優越感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過去の 帝國主義
的思想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近者에 皇室과 神社에 대한

그런된 觀念이 나날이 變遷을
들고 일어나는것을 보아도 實
然한 일이라고 「저지는 바
이

이제 日本사람이 앞으로 참으
로 世界로 進出하러 손을 잡을
수있는 새나라가 되어서 國
國民이 되려면 하루바삐 國
指導者들과 그리고 一般民衆이
같이 覺醒하여 過去の 固陋한
思想과 萬國의 根性을 清算하고
참으로 民主主義와 나아가서는
基督教로 돌아와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야 東洋諸國이
서로 和親해서 지낼수있고 따
라서 韓日關係도 圓滿해질것
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日本의 基

宗敎問題로 보아서 憲法改正이
當然하다는 發言으로 關係者의
莫大한 衝動을 준 事件이 있
는데 그 問題가 된것은 上記
堤氏가 伊勢神宮 年祭에 参列
한뒤에 (지난十二日付) 神社新報
에發表한談話인데 그 가운데
「伊勢神宮이 國民의 奉贊으로
되었다는것은 眞實로 고맙고
기쁜 일이고 伊勢神宮은 日本
國家의 神宮이다」 이런點으로
보아 憲法改正도 考慮하여야
할것이다.」 한 말이있다고 한
다.

이것은 비록 個人的 意見을
말한 私的談話라 할지라도 「伊

勢神宮이 日本國家의 神宮이라
는것은 적어도 日本國會의
中心이되는 衆議院議長의 發言
으로 信敎自由가 保障된 日本
宗教界의 커다란 反響을 이르
키고 특히 戰時中에 信敎自由
가 無視를 당하고 많은 迫害
를 받은 基督教界의 指導者間
에는 적지않은 物議를 이르기
고 있다.

이에 대하여 敎團議長 小崎
道雄氏가 말하기를 「그것은 衆
議院議長으로서 重大한 發言이
요 그 無理解하고 輕率함에
놀라지않을수없다 今日 國民가
은대 復古思想이 있는것은 既
知의 일이다 그러나 日本敗戰
의 原因이 天皇을 神이라하고
日本을 神國이라고 稱하는 軍
閥思想에있는것은 否定할수없는
일이다 國家神道의 復活은 大
問題요 基督教에 대하여서는
生命的인 問題라」고 하였다.
우리는 비록 이러한 問題에
直接關係가 없다할지라도 過去
에 우리基督教人은 南次郎
의 神社參拜 強制로 南次郎
의 神社參拜 強制로 南次郎
의 神社參拜 強制로 南次郎
의 神社參拜 強制로 南次郎

詩 越 波

외로운 밤 海邊가에
한 젊은이 홀로 서있다.
가슴에는 愁心이 充滿되고
이마는 懷疑에 가득하다.
젊은이는 우울한 무릎 돌결에
게 묻는다

「人生의 수수끼를 밝혀다오
제일 옛 어려운 수수끼를
애급의 僧의頭巾을 쓴머리
타이반 (Turban) 을 물린
머리 창없는 거문 모자를 쓴
머리

또 큰
많은
생각한
대체
人間은
감정인
빛나는
살고들
파도는
바람이
별들은
그러나
기다려

한글 교실

(제 27 시간) 張 曉

(7) 벗어난풀이씨-7

8. 「르」벗어난풀이씨 (르變則)
「빠르다(速)」와 같이 줄기
의 끝 소리마디(音節)가 「르」
로 된 풀이씨 가운데, 그 「르」
아래에 씨글(語尾) 「~어, ~어
서, ~어야, (었-)」 같은 것
이 붙으면 「르」가 「러」처럼
변화하는 것을 「르」벗어난풀이
씨라 합니다.

7. 빠르~어 → 팔러 러어
→ 팔 러→팔라.
빠르~어서→팔러서→팔라서
빠르~어야→팔러야→팔라야
빠르~었다→팔렀다→팔랐다
이와 같이 됩니다. 「팔러」로
되어 가지고 다시 「팔라」로
변하는 것은 「팔」의 음소리
(母音)가 「ㅏ」이기 때문에
소리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물
론 옛 소리마디가 「ㅏ, ㅑ」인
것이 아니면 「너르~어→널러」
로 됩니다.

1. 빠르~고
빠르~니
빠르~면
빠르~바니다.
「~어-」밖의 씨글 위에서는
「과」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르」벗어난풀이씨는 아래와
같은 말들입니다.
개으르다 (개울러) 바르다 (발라)

붙입니다. 이와 같이 「~어-」
를 「~러-」로 바꾸는 것을
「르」벗어난풀이씨라 합니다
7. 푸르~어 → 푸르러,
푸르~어서→푸르러서
푸르~어야→푸르러야
푸르~었다→푸르렀다.
물론 이 밖의 모든 씨글은
바뀌지 않습니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면

「르」벗어난풀이씨에는
누르다 (黃누르러, 누르렀다)
이른다 (至, 이르러, 이르렀다)
따위가 있습니다.
줄기 끝이 「르」로 된 것은
먼저의 「으」벗 (제 24 시간) 과
이 시간의 「르, 러」벗 중 어
는 것에 속합니다. 비교하면,
치르~어→치러
너르~어→널러
누르~어→누르러
와 같이 됩니다.

×× ×× ××
10. 「여」벗어난풀이씨
「깨끗하다, 정하다」와 같이
줄기의 끝 소리마디가 「하」로
된 것은 그 아래에 붙을 씨
글 「~아-」를 모두 「~어-」
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7. 깨끗하~아→깨끗하여서
깨끗하~아서→깨끗하여서

敎育人과 專히 敎界指導者의
명성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자 基督敎自體에서 깊이 받
성하고 曰く傳道에 努力할것이
며 다음에 점점 強하게 일어
나는 逆轉思想으로 曰브러
있게 싸와야 할것이다.

小説

새벽종

(32)

田榮澤 作

시련의 고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소 그동안
미안한것은 다 말할것 없고
앞으로는 이제 당신을 고생한
시키고 살게될것 같으니 지내
부시다 아무리 전정중이라도
당장 연구살아야 하겠으니까
말이야 식구들 밤이나 연두를
할 품안이 없으니 아니 일이

관심 願學의 머리 기타
人間의 담을린 머리가
수수꺼끼를.

人間의 뜻이란 무엇일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 저천상의 금빛에
별들에는 어떤이가
있을까?

공임없이 웅청다.
불고 구름이 날고
빛났다 關心없이차게
한어리석은 이는 대답을
고 있다.

깨끗하~었다~ 깨끗하였다.
~아~ 이외에는 다름 없습
니다. 즐기 끝이 ~하~로 된
것은 다 ~여~ 벗어난줄이시입니
다. (부낙하다. 반듯하다. 단단
하다. 검강하다. 일한다. 노래한
다. 장사한다. 연구한다...따위)
이로써 벗어난줄이씨의 중요
한 것을 대강 말하였습니다.

그려다 (誤글러) 다르다 (美달라)
×× ×× ××
9. 러 ~ 벗어난줄이씨
역시 줄기의 끝 소리마디가
~르~로 된 것으로서 무르다
(靑) ~와 같은 것은 그 아
래에 붙는 씨를 ~어, ~어서
~어야, (었-) ~대신에 ~러
~러서, ~러야, (렸-) ~을

러 사람을 부리고 어디나갈때
에는 반드시 택시를 타고 회
사와 사택에는 전화를 놓았다
자 오늘은 동네 온천이나 갈
세다.
태호는 명을들 데리고 택시
를 몰아서 동네 온천을 가서
하루를 지내고 오기도 하고
극장에도 가끔 가고 손님을
집에서 대접하지 않고 밖
서 대접 할 때는 일류 양
식당에도 가서 주부의
역할을 하고 물론 옷도 해입
고 용돈도 마음대로 썼다.
상장부인 사장부인
하고 사원들은 관심거리고 사
원의 부인가운데 명애의 동무
가 하나 있는데 슬그머니 명
애를 부러워하고 나이가 한두
살 위면서 ~언니~라고 하고
아침을 하는것은 낮이 간지러
울 지경이었다.
태호는 출장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고 대구나 서
울도 가고 일본도 가끔 갔다
일본에 갔다올적마다 화장품이
며 옷감이며 여러가지 선물을
잔뜩 사다주었다 그러나 명애
는 이런 사치품이나 호강스러
운 생활이 도무지 마음에 반
갑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시장
에서 힘들여 벌어들인 일이
그리웠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한번은 길에서 치마자락을 붙
잡는 아이를 자세히 보니 우
동가게 활짝에 날마다 와서
먹는 아이였다 눈이 크고 귀
염성스럽게 생긴 계집이었다.
아주머니 이제 우동가게 안
하셔요
명애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짐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
이고 그날부터 집에 재웠다.
고아원이나 할까 나는
명애는 태호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업선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날
마다 피를 흘리는데 그렇게
중거거리는것이 마음에 딱 피
로웠다 더구나 다리없고 팔없
는 상의군인들의 모양을 볼때
에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자
기질 생활을 돌아보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금할길이 없었다.

그런지 몇달뒤에 국제시장에
서 하던 우동가게는 처분을
해버리고 태호네는 대신등 큰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동
광동 변화한 거리에 사무실집
을 마련하고 회사간판을 걸고 여
사장실에는 태호가 앉아서 여

Dodge De Soto

CHRYSLER WINDSOR DELUXE \$3,467.44
DODGE KINGSWAY CUSTOM \$2,556.70

Prices includes Radio, Heater, etc. 1954 Models

新車사실분은
한번日本事務
所로來訪하십
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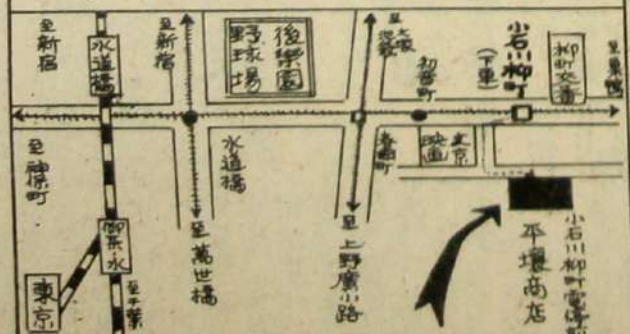


柳韓근리아모터-스日本事務所
東京都港區青山南町6-120
電話 青山 40-0032

Chrysler Plymouth

朝鮮布木

平壤商店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82) 0187・4879